



즉시 배포용: 4/8/2015

주지사 **ANDREW M. CUOMO**

CUOMO 주지사, 오피오이드 유행과의 싸움에 추가 예산 지원 발표

주 예산으로 학교에서의 날록손 가용성 확대

Andrew M. Cuomo 지사는 오늘 오피오이드 중독에 맞선 뉴욕주의 싸움이 전주 학교에 날록손 키트를 제공하고 교직원을 훈련하기 위한 새 예산으로 강화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.

“날록손 키트를 제공하고 학교를 훈련하기 위한 이 투자로 우리는 오피오이드 사용 및 중독에 맞선 싸움으로 생명을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”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. “이는 젊은 뉴욕커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의 구석구석에 너무 많은 불필요한 비극을 야기해 온 유행입니다. 이 자금은 젊은 생명을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금년 예산에 포함시켜 자랑스럽습니다.”

2015-16 뉴욕주 예산의 일부로 포함된 272,000 달러의 자금은 주의 약 3,000 교육구의 학교 간호사 및 기타 요원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. 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본인 학교를 위한 날록손 키트를 받을 것입니다. Cuomo 지사의 *헤로인 터치* 캠페인에 의거 교직원들이 날록손 키트와 훈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자금은 특히 학교를 위해 따로 떼어둔 것입니다. 프로그램의 시행을 확립하는 최종 규제가 현재 주 교육부의 협조로 기초되고 있습니다. 훈련은 최초 대응자 및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훈련하는 데 이미 이용되는 것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“헤로인 및 오피오이드의 남용은 뉴욕커들의 건강과 안녕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 중의 하나입니다”라고 뉴욕주 보건부 장관 대행인 Howard Zucker 박사가 말했습니다. “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려면 우리는 과량 투여를 식별하고 역전시키는 방법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훈련해야 합니다. 이 자금은 학교 간호사와 교직원들이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과 자원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”

오피오이드 과량 투여를 역전시키는 약제인 날록손의 가용성 증대는 Cuomo 지사가 뉴욕주에서 오피오이드 남용을 종식시키기 위한 싸움의 중심에 있는 최우선 순위 중 하나입니다. 불법 또는 처방 여부에 상관 없이 날록손은 투여되면 일시적으로 오피오이드의 효과를 역전시키고 사람이 의식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호흡을 재개할 수

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능합니다. 이 약물은 어쩌다 접촉할 수 있게 되는 사람에게는 위험을 제기하지 않으며 남용될 수 있는 종류의 약물도 아닙니다.

작년에 **Cuomo** 지사가 이 유행과 싸우기 위한 법안에 서명한 이래 뉴욕주는 이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룸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과감한 오피오이드 과투여 반대 캠페인을 추구해 왔습니다. 오피오이드 과투여가 발생할 때의 날복손 사용을 훈련 받은 최초 대응자와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현재 **45,000**여명이며, 작년만해도 **500**여명의 목숨이 구조되었습니다.

그뿐만 아니라 **2014**년에 **Cuomo** 지사는 헤로인 및 처방 오피오이드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뉴욕커들에게 알리고 교육하기 위한 헤로인 & 처방약 남용 퇴치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. [헤로인 퇴치 웹사이트](#)에서 뉴욕커들은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오용의 징후에 대한 정보, **Office of Alcoholism & Substance Abuse Services** 치료 기관에 대한 접근성, 부모가 자녀들과 상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가이드, 그리고 부모와 의료 전문가 간 상담 등에 대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

###

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